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보험범죄 합동대책반, 연말까지 보험범죄 집중 단속

- 정부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‘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’을 설치·운영하기로 하였으며, 대책반은 검·경찰, 금융위, 금감원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되어 금년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임.
 - 대책반은 각종 첩보, 금감원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혐의자료 등을 분석하고 수사를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수사기관에 이첩하되, 대규모·구조적 범죄 등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 관리할 계획임.
 -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보험혐의자 색출이 용이하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한 병원, 정비업소,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 되는 등 그 기능이 정교해짐.
 - 동시에 금융당국 차원의 보험범죄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‘보험조사협의회’ 참여기관의 확대, 민간보험회사 차원에서의 보험범죄 적발 능력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임.
 - 나아가 경찰청 외에 검찰, 소방방재청, 해양경찰청 등으로 보험범죄 관련 교육대상 기관을 추가하고, 교육 횟수도 기존 180명(연 3회)에서 300명(연 5회)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범죄 관련 프로그램인 ‘보험범죄 아카데미’를 활성화할 계획임.
 - 한편, 이번 대책은 단속, 제도개선, 교육, 민관협조대책 등을 종합하여 마련된 만큼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가동되는 등 관계부처 또는 소관기관 별로 관련 대책이 추진될 예정임.
 -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각 세부대책간의 시너지 효과로 인한 보험범죄 적발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보험범죄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함.
 - 또한 이번 대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금년 말에 설치되는 합동대책반의 6개월 운영실적을 분석·평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가·검토할 방침임.
- (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7월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‘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’ 설치운영, 국무총리실, 6/19)